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강만익**

- I. 머리말
- II.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분석
- III.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 IV. 맺음말

국문요약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지역민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148명에 대한 현황분석과 그들의 활동거점인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148명 독립유공자 공적개요를 중심으로 파악한 독립운동 양상은 국내항일운동(82), 일본방면활동(19), 3·1운동(18), 학생운동(18), 의병(4), 문화운동(4), 광복군(1), 애국계몽운동(1), 임시정부(1)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훈격 현황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은 해당자가 없으나, 건국훈장에 속하는 애국장(21)과 애족장(79) 그리고 건국포장(21), 대통령표창(27)이 확인됐다. 148명이라는 독립유공자 수치는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독립운동인사 500여명의 30% 정도에 불과해 추가

*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이 2017년 12월 8일(금)에 개최했던 「제주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재조명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제1회 제주항일기념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소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자료발굴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정을 확대했으면 한다.

제주지역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 만세운동에서부터 시작해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실현을 지향하는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에는 신인회, 신간회, 제주청년동맹, 제주 야체이카, 제주적색농업조합이 대표적이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던 아나키즘 계열에는 우리계(宇利契)가 있었다.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가지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 개발, 항일독립운동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청소년 보훈캠프 등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이 제주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를 유도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독립운동 사적지, 독립운동 유공자, 제주항일기념관, 사회주의, 다크투어리즘.

I. 머리말

독립운동 사적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의 산물이다.¹⁾ 2017년 12월 중국 충칭 임시정부 터를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독립운동 사적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이 연구는 2017년 12월 현재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자료관에 등재된 제주지역 독립유공자 148명의 독립운동 전개양상과 2009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40개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이

1)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327쪽.

다. 연구자는 2009년 독립기념관의 의뢰를 받아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수행한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에 조사원으로 참가해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를 조사했던 경험에 있다.²⁾ 당시 조사결과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에 의해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로 발간되었다.³⁾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한중·남정우·이해영이 「독립운동사 교육에서 사적지 활용방법과 그 효과」라는 주제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활용한 사적지 활용방법을 제시했다.⁴⁾ 박경목은 천안, 예산, 계룡, 청양, 충북지역에 분포한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과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들을 제시했다.⁵⁾

제주지역에서는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실례로 송광배는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에 대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⁶⁾ 염인호는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제주 야체이가 사건과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역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양상을 제시했다.⁷⁾

- 2) 당시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팀은 제주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적지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 사적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실태를 조사표와 영상으로 기록하는 한편, 결과물은 독립운동 교육 자료와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은 조사단장과 간사,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팀 그리고 동영상과 카메라 사진촬영 팀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자문과 결과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을 두었고, 조사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부터 1945년 광복까지였다.
- 3)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 4) 김한중·남정우·이해영, 「독립운동사 교육에서 사적지 활용방법과 그 효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5) 박경목,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도시 마케팅을 일환으로-」, 『충청문화연구』 7,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1; 「천안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창의적 체험학습 관광 활성화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 9, 충청문화연구소, 2012; 「청양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충청문화연구』 5,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6.
- 6)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논문, 1985.
- 7)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가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제주

김동전은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⁸⁾ 김창후는 재일제주인의 항일운동에 주목하며 김문준의 활동사례와 재일제주인 항일운동가들의 국내(제주외)에서의 투쟁성격을 발표했다.⁹⁾ 박찬식은 제주의 항일운동을 193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독립운동가의 시대별 성격을 고찰했다.¹⁰⁾ 김찬흡은 『제주항일인사실기』를 통해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했던 제주 항일인사 505명의 활동상을 제시하여 독립운동 연구에 초석을 놓았다.¹¹⁾ 한금순은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 법정사 승려들과 지역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제주도내 최대 무장항일운동이었음을 밝혔다.¹²⁾ 심옥주는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을 통해 한국민족운동사의 관점에서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³⁾ 문혜정은 조천만세운동의 발생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¹⁴⁾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독립운동사 선행연구들은 개별 사건의 전개과정과 독립운동 주도 인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며 독립운동 사적지에 관심을 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사연구』 1,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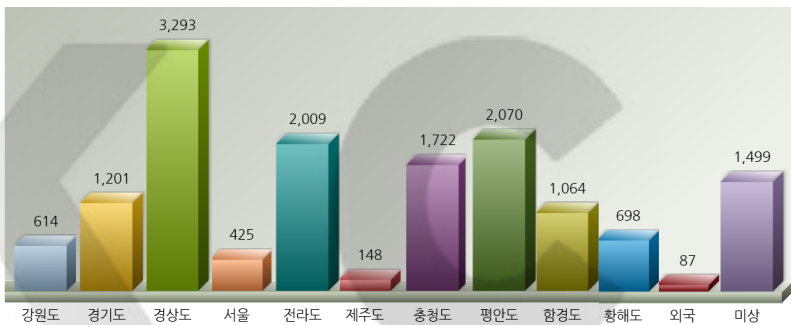
- 8)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9)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과제-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 6, 1997; 「일제시대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들의 국내(제주외)에서의 투쟁과 그 성격」, 『제주도사연구』 8, 1999.
- 10) 박찬식,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의 시대별 성격」, 『제주도사연구』 8, 제주도사연구회, 1999.
- 11) 김찬흡,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북제주문화원, 2005.
- 12)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 13) 심옥주, 앞의 논문, 2013.
- 14) 문혜경, 「제주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새로운 정립-조천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제주항일항쟁사』, 제주항일기념관, 2014.

Ⅱ.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분석

1. 독립운동 유공자 및 미인정자 현황

1)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

2017년 12월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전국의 독립유공자 수는 14,830명으로, 출신지역별 유공자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이 가운데 경상도 지역이 3,293명으로 가장 많으며, 평안도와 전라도가 뒤를 잇고 있다. 제주지역은 148명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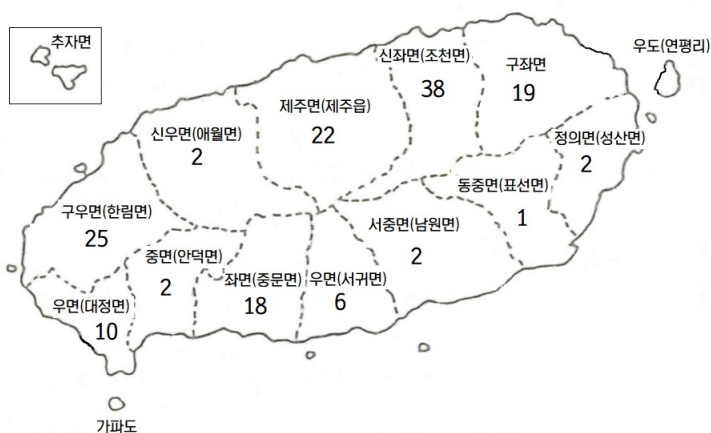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독립유공자 출신지별 현황¹⁵⁾

본적지와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정우생(鄭友生, 일본방면 독립운동, 2006년 애족장)을 제외한 147명의 독립운동 유공자의 지역별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독립유공자는 신좌면(조천면, 38명), 구우면(한림면, 25명), 제주면(제주읍, 22명), 구좌면(19명), 좌면(중문면, 18명), 우면(대정면, 10명) 등에 분포해 있다.

독립유공자 최대 분포지는 신좌면(조천면)으로, 이 지역에는 1919년 3·1 운동과 1920~30년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집중돼 있다. 신좌면(조천면) 지역은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독립운동을 대표했던 중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 그래프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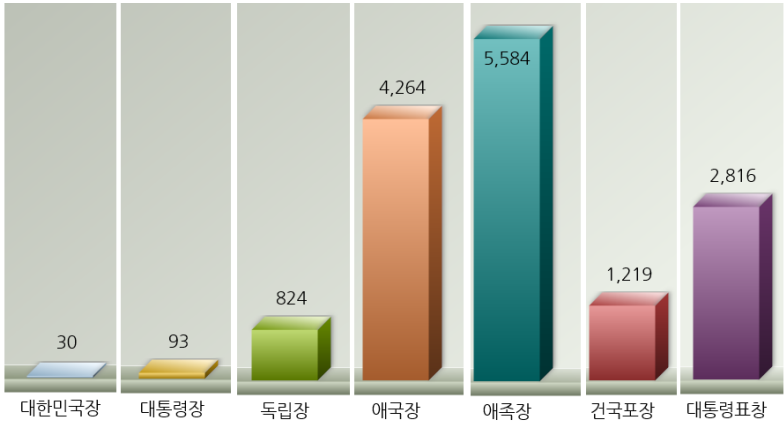


〈그림 2〉 독립운동 유공자 분포현황(1905~1945)

구좌면 지역은 해녀항일운동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구우면(한림면) 지역은 일본지역 독립운동, 좌면(중문면)은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독립유공자들이 집중되었다.

한편, 독립운동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4)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¹⁶⁾ 이 법률에 근거해 독립유공자들이 받는 포상 훈격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구분된다. (그림 3)은 2017년 현재 전국 독립유공자의 포상훈격을 나타낸 것으로, 이 가운데 애국장과 애족장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16)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리고 애국지사는 같은 시기에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어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림 3〉 전국 독립유공자 훈격별 현황¹⁷⁾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들의 포상 훈격은 <표 1>과 같다. 이것은 2017년 12월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독립유공자 훈격 현황¹⁸⁾

건국훈장					건국 포장	대통령 표창	총인원
대한 민국장 (1등급)	대통령장 (2등급)	독립장 (3등급)	애국장 4등급	애족장 (5등급)			
0	0	0	21	79	21	27	148
0	0	0	14	53	14	19	100

이 표를 보면, 최고권위인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 독립장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⁹⁾ 애국장과 애족장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건국훈장 100명, 건국포장 21명, 대통령 표창 27명으로, 총 148명이 독립운동

17)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 그래프자료 재구성.

18)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e-gonghun.mpva.go.kr, 2017년 12월 23일 접속).

19) 실례로 대한민국장은 안중근 의사(의열투쟁), 대통령장은 주시경 선생(애국계몽운동), 독립장은 유관순 열사(3·1운동)가 받았다.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항일독립인사 500여명 가운데 30% 정도에 불과하다. 애국장을 수여받은 21명은 제주지역 독립운동에서 가장 공적이 높게 평가된 인사들로, <표 2>는 애국장을 받은 명단과 공적내용이다.

<표 2> 애국장 수여자 명단과 공적내용²⁰⁾

성명	운동계열	주요 공적개요
康箕贊	국내항일	독서회 활동(1928), 우리계(宇利契) 활동(1929)
姜壽五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姜昌奎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姜昌輔	국내항일	신간회 활동(1927), 제주 야체이카 활동(1931)
姜春根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高秉禧	국내항일	우리계(宇利契) 활동(1929)
高仕訓	의병	제주의병장(1916)
金斗三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金萬石	의병	제주의병활동(1909)
金泰和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金性鐘	일본방면	일본 성심야학교에서 민족교육(1938)
金淳熙	학생운동	조선학생전위동맹 활동(1929)
金時容	국내항일	부산에서 총파업을 통한 노동탄압 항거(1931), 일본 제국주의 야망 비판 및 반전 활동(1937)
金沄培	국내항일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한 편지 전달(1920)
金才童	국내항일	합덕리 비석사건(1931)
文德洪	광복군	광복군에 입대해 총사령부 부원으로서 임정경위실 대원으로 활동(1941)
朴周錫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夫生鍾	문화운동	독서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문과 민족역사교육(1934)
申才弘	국내항일	혁우동맹 활동(1930), 제주 야체이카 활동(1931)
趙大秀	문화운동	독서회 활동(1928), 우리계(宇利契) 활동(1929)
趙鳳鎬	국내항일	독립회생회 연락원 김창규와 모의하여 독립회생회 제주도지 방조직을 만들고, 임정현장과 해외 통신문 등을 유인하여 전도에 배포(1919)
洪元杓	학생운동	광주학생운동 참여(1929)

20)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년 12월 23일 접속)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단일 독립운동으로는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애국장 수여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되는 1919년 조천만세운동과 1932년 해녀항일운동 관련자들은 1명도 애국장을 수여받지 못했다. 또한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운동(1929) 참가자에 대해서는 애국장이 수여되었으나,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운동 관련자들은 애국장을 받지 못했다.

운동계열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여기에는 제주 의병운동(1909), 법정사 항일운동(1918), 조천 만세운동(1919), 제주 해녀항일운동(1932)과 관련된 유공자들 그리고 문화운동, 국내항일운동, 학생운동, 광복군, 애국계몽운동, 일본방면 활동, 임시정부 관련 활동들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제주 의병운동은 제주지역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의병부분의 독립유공자는 애국장 2명과 애족장 2명에 불과하다.

〈표 3〉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현황²¹⁾

순번	운동계열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계열별 인원
1	의병	2	2	0	0	4
2	3·1운동	0	5	1	12	18
3	문화운동	2	2	0	0	4
4	국내항일운동	14	48	11	7	80
5	학생운동	1	8	4	6	19
6	광복군	1	0	0	0	1
7	애국계몽운동	0	1	0	0	1
8	일본방면활동	1	12	5	2	20
9	임시정부	0	1	0	0	1
총인원		21	79	21	27	148

애국계몽운동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신좌면 조천리 출신 고순흠(高順欽) 뿐이다. 그는 1921년 9월 조선통신중학교를 개설해 학감(學監)으로 취임한 후, 『통신중학강의록』을 발행하여 독학자들이 실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21)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년 12월 23일 접속).

준 사실이 확인되어²²⁾ 1990년에 애족장을 받았다. 1920년대 제주지역 교육 기관의 수와 활동을 고려할 때,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에 대한 추가 발굴과 자료조사가 필요하다.²³⁾

한편, 공훈전자자료관에 등재된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공적개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으로 분류해야 할 1건(姜昌舉, 1926)과 일본방면 활동을 분류해야 할 1건(吳南學, 1945)이 국내항일운동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해 바로 잡은 것이 <표 3>이다. 국내항일운동과 3·1운동, 학생운동 부문에서 대상자가 많은 것은 제주지역 역시 한국독립운동의 틀에서 독립운동을 실천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제주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염두에 둘 때, 일본방면 활동으로 다수의 독립유공자가 인정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²⁴⁾

광복군 활동과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는 각 1명이다. 광복군 활동을 했던 문덕홍(文德洪)은 일본 선박의 선원으로 강제 징용되어 상하이·홍콩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40년에 탈출해 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했다. 1942년 10월에는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비대원으로 활동했으며, 1945년에는 임시정부 김구 주석 경호 실장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광복군 활동이 인정되어 1990년 애국장을 받았다.²⁵⁾ 1990년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애족장을 인정받은 고수선(高守善)은 본래 대정면[읍] 가파도가 고향으로, 상해 임시정부로 군자금(軍資金) 송금을 담당했다.

2) 독립운동 미인정자 현황

독립운동 미인정자는 독립운동에 참여해 일제에 의해 실행을 언도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을 입증할 증빙문서나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독립운동

22) 김찬흡, 앞의 책, 155쪽.

23) 심옥주, 앞의 논문, 348쪽.

24) 심옥주, 앞의 논문, 354쪽.

25) 김찬흡, 앞의 책, 321-322쪽. 이 책에서는 제주지역 항일인사를 505명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이 책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505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추후 독립운동사에 대한 추가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경우 제주지역 항일인사는 505명을 넘어설 수도 있고, 505명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열악한 연구 환경 하에서 제주지역 항일인사를 505명이나 밝혀낸 김찬흡 선생님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인사들이다.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거나, 독립운동 사료들이 멸실되어 버린 결과, 독립운동 유공자로 신청조차 하지 못한 항일 인사들도 미인정자에 해당한다.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항일인사는 총 505명으로,²⁶⁾ 이 가운데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148명을 제외하면, 추자도 항일운동 19명, 정미면 청년회 씨름대회 사건 43명 등 총 357명이 현재까지 독립운동 미인정자로 남아있다.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 가운데 70% 정도가 아직까지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미인정자 사례를 보면, 첫째, 독립운동을 입증할 만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실례로, 1909년 제주시 광양벌에서 봉기한 제주의병 항쟁에 참여했던 김재돌(1882~1956)은 아명(兒名)인 ‘김재돌’과 호적상 이름인 ‘김문우’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공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임도현(1909~1952)은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항일운동을 벌였던 비행사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필이력서 외에는 활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26년 5월 추자도어업조합의 횡포에 저항했던 예초리 주민 항일운동과²⁷⁾ 1932년 추자도 영흥리 주민들이 일본인 선장인 사와다의 배에서 그물을 끌어 내리며 저항했던 ‘사와다 그물망 사건’ 관련자들도 증거(관결문) 부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²⁸⁾

둘째, 1919년 조천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장환과 김시범(1890~1948)의 사례처럼 독립운동에 참여한 근거자료가 명백해도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김두성(1913~2005)은 조천면 함덕리 일대에서 야학을 일으키고 애도비 사건을 주도했으나, ‘해방 후 행적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했다.²⁹⁾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독립투사 사상 검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⁰⁾

26) 김찬흡, 위의 책, 79-95쪽.

27) 『한라일보』, 2016년 6월 8일자, 「제주 추자도 예초리 어민항쟁 기념비 세운다. 1926년 5월 14일 추자도어업조합 횡포·천초 수탈 저항」.

28) 『제민일보』, 2006년 3월 1일자, 「관결문 없으면 유공자 아닌 가」.

29) 『제주신보』, 2015년 8월 17일자, 「잊혀져 가는 애국열사들, 정부가 챙겨야」.

셋째,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아 독립운동 사료를 제출하지 못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강평국(姜平國, 1900~1933)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며 이름을 ‘연국(年國)’에서 ‘평국(平國)’으로 바꾼 여성으로, 신성여학교(1915년)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1919)를 졸업한 후, 1925년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해 여권신장에 힘썼던 인물이었다. 1927년에는 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집행위원장으로 일제 저항운동을 펼쳤다. 1928년 항일 여성단체인 ‘근우회’ 도쿄지회 창립 때 목포의 박화성과 함께 의장단에 뽑혔던 여성 독립 운동가였다.³¹⁾

넷째, 1905년 집의계 조설대 구국맹약지 관련 항일인사 12명 전원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³²⁾ 2016년 12월 조설대 집의계 12명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제주보훈청과 오라동 주민들 간에 발생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보훈청은 조설대 집의계 12인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했거나 항거한 사실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행사 시 독립유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제주보훈청은 “계모임까지 애국지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 1차적인 고증자료도 없다. 본인들이 아직까지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국지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³³⁾

30) 『제주신보』, 2017년 8월 14일자, 「목숨 건 항일투쟁 인정 못 받은 비운의 독립투사들」.

31) 『제주일보』, 2005년 2월 24일자, 「불꽃처럼 살다간 제주여성··독립·여성운동가 강평국 재조명」.

32)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직후 문연서당(文淵書堂)의 유림 12명이 집의계(集義契)를 결성,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으로 ‘조설대(朝雪臺)’라는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기려 제주시 오라동 후손들이 해마다 경모식(敬慕式)을 거행하고 있다.

33) 『제주의 소리』, 2016년 12월 6일자, 「“애국지사 사칭”vs“제주도민 무시” 조설대 논쟁…왜?

2. 독립운동 유공자의 독립운동 양상

1) 국내 항일운동 분야 독립운동

한반도와 격절된 제주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는 제주의병항쟁(1909),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1918), 조천 만세운동(1919) 그리고 신인회 활동(1925)과 우리계 활동(1929),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운동(1926, 1931), 해녀항일운동(1932), 추자도어민항쟁(1932)이 대표적이다. 국내 항일분야 독립운동은 제주인이 제주도와 ‘육지부’[한반도]에서 전개했던 활동을 말한다. 이 독립운동은 3·1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제주도민들과 제주출신 유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비밀결사의 조직원으로 항일운동을 벌였으며, 운동성향도 3·1운동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것이 1920년대 말부터는 사회주의 계열로 바뀌어 갔다.³⁴⁾

국내 항일운동 분야 유공자는 법정사 항일운동(1918)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천주교사건(1941) 8명, 혁우동맹 7명, 제주적색농민조합 6명, 해녀항일운동(1932) 3명 등이다. 이 가운데 첫째,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유공자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항쟁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도순리 법정사 승려인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 700여 명과 함께 일으킨 것으로,³⁵⁾ 당시 이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27명이 독립유공자(애국장 6명, 애족장 20명, 대통령표창 1명)로 인정받았다. 『제주항일독립운동사』(1996)에 기재된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는 총 66명으로, 이 가운데 41%인 27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39명은 미인정 상태로 남아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애국장을 받은 인물은 강수오(姜壽五, 재판전 옥사)·강창규(姜昌奎, 스님, 징역 8년)·강춘근(姜春根, 재판전 옥사)·김두삼(金斗三, 징역 1년, 옥사)·김봉화(金奉和, 스님, 징역 2년, 옥사)·박주석(朴周錫, 징역 7년, 선도교 수령, 옥사)이다.³⁶⁾ 법정사 주지였던 김연일(金連日, 1871~1940, 애족장)은 본적지가 경상북도 영일이어서 제주의 독립유공자 148명에는 포

34) 김창후, 앞의 논문, 229쪽.

35) 한금순,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89쪽.

36)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9, 423-425쪽.

합되지 못했다.

둘째, 제주지역의 독립운동에는 외국인 신부도 참여했다. 이것은 제주천주교사건(1941)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은 천주교 신부였던 다우슨 파트릭크(孫神父, 제주천주교회), 오스틴 수위니(徐神父, 서귀포 천주교회), 토마스 다니엘 라이안(羅神父, 서귀포 천주교회)이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일본 측이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과(戰果)를 과대하게 포장해 보도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일본의 패망이 멀지 않았음을 신도들에게 주지시켰다.³⁷⁾ 이 과정에서 3명의 신부들과 전도사를 포함한 신도들이 체포되어 불경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제주출신 8명과 전남 해남 출신 김남식(金南植, 건국포장) 및 전남 나주 출신 이응범(李應範, 애족장) 등 모두 10명이다. 일제의 삼엄했던 전시체제(戰時體制) 하에서 제주지역 독립운동에 외국인 신부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제주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셋째, 제주지역 독립운동에는 여성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것은 제주해녀항일운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본래 제주해녀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제주도해녀조합(조합장은 濟州島司가 겸임했음)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은 제주도해녀조합이 구좌면 하도리 해녀들이 캐낸 감태와 전복 가격을 강제로 싸게 책정하려고 함에 따라 하도리 해녀 300여명이 1932년 1월 7일 세화리 오일장에 모여 이 조합의 횡포를 성토했으면서 시작되었다. 대규모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벌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는 김옥련(金玉連, 건국포장)·부덕양(夫德良, 건국포장)·부춘화(夫春花, 건국포장) 등 3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이 모두 건국포장을 받았다는 것은 해녀항일운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사회주의 관련 인물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1920년대 후반 제주사회에 등장한 사회주의는 제주지역 내에 뚜렷한 노동자 계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주소작관계가 발달하지도 않았으며, 민족주의적 항일운동을 이끌어 나갈 유림의 전통이나 근대적 자본가의 형성이 미약했던 사회분위기 하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중소자본가 가문출신의 청년지식인들이 일본 및 육지부로 유학하여 신사상(新思想)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한 후, 지역사회에 파

37)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60-164쪽.

급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³⁸⁾ 당시 사회주의는 제주사회에서 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입되어 청년층의 지지를 받았다.

제주 최초의 사회주의자는 조천리 출신 김명식(金明植)으로, 그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조선노동공제회(1920), 조선청년연합회(1920), 서울청년회(1920) 결성을 주도했으며³⁹⁾ 1999년에 애족장을 받았다.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했던 조직체로는 신인회(新人會, 1925), 제주청년동맹(1928), 신간회 제주지부(1929),⁴⁰⁾ 제주야체이카, 혁우동맹, 제주적색농민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신인회는 제주지역 사회주의 급진청년들이 1925년 3월 사상단체로 조직한 것으로, “오인(吾人)은 무산자를 본위로 하는 신사회 건설을 기함”이라는 강령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명백히 나타냈다.⁴¹⁾ 제주청년동맹은 1928년 4월 모슬포에서 개최되었던 제주청년연합회 총회에서 이 연합회를 제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할 것을 가결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청년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1931년 조선공산당 제주 야체이카(당세포)를 결성하였다. 신인회를 조직해 활동했던 송종현, 한상호, 김택수, 강창보가 당세포를 맡았으며, 책임자는 송종현이었다.⁴²⁾

혁우동맹은 1930년 3월 구좌면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한 비합법 지하조직으로, 강관순, 김성오, 김시근, 문도배, 부태현, 신재홍, 오문규가 참여하여 해녀들의 자주적 판매를 가로막았던 제주도해녀조합을 비판했다.⁴³⁾ 제주적색[혁명적]농민조합은 전국에서 농촌진흥운동⁴⁴⁾이 전개되던 1933년 1월 제주야체이카 출신 김두경, 김경봉, 김일준, 부병훈이 만든 조직이었다. 당시

38) 박찬식, 앞의 논문, 1999, 226-227쪽.

39)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96쪽.

40) 당시 신간회 제주지회장은 김명식, 간사는 송종현, 강창보와 김택수는 회원이었다. 송종현과 김택수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41) 당시 신인회 간부에는 김택수(25세), 송종현(25세), 한상호(25세), 강창보(24세), 홍순일(24) 등으로 이들은 제주지역 사회주의 운동의 1세대로 평가받는다(염인호, 앞의 논문, 1990, 97쪽). 이들 가운데 강창보는 2005년에 애국장을 받았다.

42) 염인호, 위의 논문, 1990, 99쪽.

43) 염인호, 위의 논문, 116쪽. 혁우동맹에 참여했던 강관순, 김성오, 김시근, 문도배, 신재홍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44) 조선총독부가 주도해 1932년~1940년 사이에 전개했던 관제농민운동이었다.

핵심인물들은 리민회, 민풍진흥회 등 합법적인 진흥운동 단체에 잠입해 일제의 착취사실을 농민들에게 폭로하고 농민들을 투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⁴⁵⁾

다섯째, 아나키즘(anarchism) 관련 독립유공자도 있었다. 아나키즘은 본래 모든 정치조직과 권력을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무정부주의’라고도 불렸다. 아나키즘의 비판 대상은 국가권력, 자본, 종교 등에도 미치며,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지배를 부정하는 조류를 의미한다.⁴⁶⁾ 제주지역에서 아나키즘을 주도했던 고병희는 “제주도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보다는 무정부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느 편으로 보든지 좋다”고 주장하면서⁴⁷⁾ 아나키즘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29년 5월 5일 고병희, 조대수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계(宇利契)를 조직했다.⁴⁸⁾ 우리계 계원들은 매달 3원씩을 3년간 식산은행 제주지점에 예금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일종의 친목계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상품과 일본기업을 배척하는 활동을 했으며, 나아가 교통기관과 생산기관을 장악하여 아나키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⁴⁹⁾

2) 국외 일본방면 독립운동

<표 4>에서처럼 일본방면 독립운동 유공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가운데 애국장을 받은 인물은 일본 성심야학교에서 민족교육(1938)을 했던 김성종(金性鐘)이 유일하다. 성심야학교(誠心夜學校)는 우도출신으로 1928년 3월에 도입한 이봉춘(李奉春)이 설립한 야학교로, 여기에 교사로 취업했던 김성종

45) 염인호,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1991, 163쪽. 적색농민조합운동에 참여했던 인사 가운데 김두경과 김경봉이 각각 애족장을 받았다.

46) 『네이버 지식백과』 아나키즘(anarchism)(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47)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 야제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110쪽.

48) 『동아일보』, 1930년 12월 10일자, 「濟州島事件 最高五年言渡」. 여기에는 무정부주의자 관련 판결결과가 보도되었다. 우리계 관련하여 재판받았던 인물은 모두 6명으로, 고병희 5년, 조대수 4년, 고영희(高永禧) 4년, 강기찬 3년, 김형수 3년, 임상국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기찬과 고병희는 애국장, 김형수는 애국장을 받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상국을 제외한 고영희는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49) 염인호, 위의 논문, 1990, 110-111쪽.

(평대리 출신)은 1938년부터 조선출신 무산자(無產者) 청소년들에게 조선독립가를 부르게 하고 한국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했다.⁵⁰⁾

일본방면 독립운동은 첫째, 일본으로의 제주도민 이동의 산물이었다. 1922년 일본 오사카(대판)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소득창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일하여⁵¹⁾ 제주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일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판지부에서 노동운동(1932)을 했던 김태권(金太權)과 일본 섬유노동조합(1931)을 했던 김희봉(金喜奉)이 대표적이다.

둘째, 재일제주인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자라는 사상성 문제에 결려 있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해방 후 북한으로 가거나 일본에 남아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표 4〉 일본방면 독립운동 현황⁵²⁾

성명	주요 공적개요	포상훈격
姜金鍾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康時儉	일본대판 흥국상업학교 재학생들에게 조선독립 취지의 연설문 배포(1942)	대통령표창
姜太善	일본 대판에서 민족의식 고양(1942)	애족장
高瀧龍	중앙대 재학 중 민족의식 고양(1938~1942)	애족장
高奉朝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高瀧豪	일본 대판중학교 졸업후 동지들과 조선독립청년당을 조직해 대판지방에서 독립운동(1943)	애족장
金文準	신간회 대판지회 감사위원장(1929), 대판조선노동조합과 전협계의 일본화학노조의 대판지부 책임자로서 반제격문 살포	애족장
金性鐘	일본 성심야학교에서 민족교육(1938)	애국장
金在珍	일본 공산청년동맹 활동(1933)	건국포장
金昌沃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목격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독립운동을 추진할 「우리들」이라는 비밀결사 조직(1941)	애족장
金太權	일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판지부에서 노동운동(1932)	건국포장
金喜奉	일본 섬유노동조합(1931), 일본 공산당 활동(1933)	애족장
夫德煥	일본 공산청년동맹 활동(1933)	애족장

50)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352쪽.

51) 진관환,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2004, 133-134쪽.

52)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과 『제주독립운동사』(1996, 제주도)에서 공적을 요약함.

夫東興	일본 대관 동아전기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1942)	대통령표창
夫林栓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夫章煥	일본 대관에서 출판관서지부를 결성하고 조직 확대를 위한 운동 전개(1933)	건국포장
吳南鶴	일본 대관 조일화학공업소 근무 중 일본의 패전을 예측하는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일본군의 불리한 전세를 전달(1945)	건국포장
吳坪允	일본 공산당 활동(1933)	건국포장
鄭友生	일본 전협 금속 대관지부에서 활동(1932), 일본공산청년동맹 활동(1933)	애족장
韓滿淑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셋째, 계림동지회 활동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김봉각(신흥리, 징역 2년 6월)과 김병목(조천리, 징역 1년 6월)을 제외한 강금중(姜金鍾), 고봉조(高奉朝), 부림전(夫林栓), 한만숙(韓滿淑) 등 4명이며 이들은 각각 애족장을 받았다. 계림동지회는 일본 오사카(대관)에서 1940년 4월 조선독립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서 활동했던 제주인 독립운동가는 300여명정도였으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부족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본방면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⁵³⁾

Ⅲ.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1. 독립운동 사적지 분포실태

독립운동 사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장소 또는 문화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건물, 집터, 기념비, 독립운동 현장 및 기타 관련 유물의 소재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적지는 한국 근대사의 근간을 이루는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으로, 그 지역의 근대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⁵⁴⁾

2009년 제주대학교 박물관 조사팀이 조사한 40개 독립운동 사적지는 제

53)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과제-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141-148쪽.

54) 박경목,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도시 마케팅을 일환으로」, 166쪽.

주시 동지역과 한림읍·추자면·한경면을 포함한 제주시 중서부권, 조천읍을 중심으로 구좌읍·우도면을 포함한 제주시 동부권, 그리고 서귀포시 전체를 아우르는 서귀포권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사들의 집터나 활동지도 포함되었다. 정의면 청년회 씨름장 항쟁지(고성리)나 집의계 조설대 구국맹약지, 제주도 경찰서 터, 가마오름 일본군 동굴진지, 송악산 해안 일본군 동굴진지, 알뜨르 비행장 등이 그 사례이다.

2009년에 조사된 독립운동 사적지들은 첫째, 제주시 동(洞)지역과 조천읍 및 구좌읍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읍 지역의 경우, 일본의 정치·행정·경제시설이 집중된 곳이었고, 조천면은 3·1운동, 구좌면은 해녀항일운동의 발생지였기 때문이다.

<표 5>는 권역별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결과표이다.⁵⁵⁾ 이에 근거해 독립운동 사적지의 종류를 보면, 가옥(18개), 건물(6개), 거리(6개), 기타(5개, 비행장과 동굴진지), 시장(2개), 묘소(2개), 산야(1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옥(18개)은 현재 남아있는 집터와 남아있지 못한 생가 터를 포함하며, 건물은 개인 집터가 아닌 법정사나 조천야학소 등 다수가 이용했던 공용시설을 의미한다. 사적지를 운동유형별로 보면, 민족주의 독립운동(12건), 사회주의 독립운동(11건), 의병운동(6건), 3·1운동(5건), 일제통치/탄압/수탈기구(4건), 한말구국운동(1건), 학생운동(1건) 순이다.

〈표 5〉 40개 독립운동 권역별 조사 사적지 현황⁵⁶⁾

권역별	번호	사적지명	종류	분류	상태	사적지지정
제주시 중서부권	1	집의계 조설대 구국맹약지	기타(비석)	한말구국운동	변형	미지정
	2	황사평 - 제주의병 훈련터	기타(마을)	의병운동	멸실	미지정
	3	제주공립농업학교터 - 학생운동지	건물	학생운동	멸실	미지정
	4	제주도 경찰서 터	건물	일제통치/탄압/수탈기구	멸실	미지정
	5	고사훈 생가터	가옥	의병운동	멸실	미지정
	6	김석운 집터	가옥	의병운동	멸실	미지정

55) 당시 독립운동 사적지 현장조사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와 김은희, 한금실, 김나영 선생님과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과 촬영팀이 참여했다.

56) 독립기념관,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31쪽.

	7	강창규 생가터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8	송종현 집터 - 신인회 활동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9	김형수 집터 - 우리계 활동지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0	강창보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1	김경봉 집터 - 적색농민조 합 활동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2	추자어업조합 터	건물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13	추자도 어민항쟁지	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4	가마오름 일본군 동굴진지	기타 (동굴진지)	일제통치/탄 압/수탈기구	복원	근대문화유산동 록문화재제308호
	15	김시항 집 - 이승훈 제주 유배지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16	미밋동산 3·1운동 만세시위지	거리	3·1운동	변형	미지정
	17	조천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시장	3·1운동	멸실	미지정
	18	함덕리 3·1운동 만세시위지	거리	3·1운동	멸실	미지정
	19	세화오일장터 제주해녀 항쟁시위지	시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제주시 동부권	20	연두막동산 제주해녀 항쟁시위지	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21	조천야학소 터	건물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2	김시용 집 - 신좌면 소비조 합 활동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원형 보존	미지정
	23	김시은 집터	가옥	3·1운동	멸실	미지정
	24	김명식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5	김문준 지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6	고순흠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7	부생종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8	부춘화 집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29	문도배 집터 - 제주혁우동맹 결성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30	강관순 집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31	백응선 묘	묘소	3·1운동	원형	미지정

					보존	
서귀포 시권	32	제주의병 집결지	거리	의병운동	멸실	미지정
	33	고사훈·김만석 순국지	거리	의병운동	변형	미지정
	34	법정사 터 - 1918년 법정 사항일운동 발생지	건물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제주도지정문화 재 기념물61-1호
	35	신유의숙 - 김성숙 활동지	건물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36	고성리 씨름장 항쟁지	산야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37	송악산 해안 일본군 동굴 진지	기타(동굴 진지)	일제통치/탄 압/수탈기구	훼손	근대문화유산등 록문화재313호
	38	알뜨르 비행장	기타(비행 장)	일제탄압/수 탈기구	원형 보존	미지정
	39	방동화 생가 터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40	김만석 묘	묘소	의병운동	변형	미지정

둘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 사적지가 50%를 넘었다.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3·1 운동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우선적으로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사례로는 추자도어민항쟁지, 제주해녀항쟁시위지 등이 포함된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나 일본에서 활동하며 사회주의를 접했던 제주인들이 귀향해서 주도한 것으로, 조천야학소터, 신좌면 소비조합터, 제주혁우동맹 결성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조천읍 조천리에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마을이 조선시대 지식인(목사, 관관, 현감, 유배인)들이 들어오는 관문 이어서 이들로부터 영향 받은 유림들이 있었고, 또한 상업 활동으로 부를 쌓은 중소 자본가들이 자식들을 일본이나 서울로 유학 보낸 사례가 있어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마을에 입지한 제주보훈청 항일기념관을 거점으로 주변에 집중된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해 조천리를 ‘제주도 독립운동의 메카(중심지)’로 활용했으면 한다.

넷째,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사적지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특히 1909년 제주의병항쟁은 제주도민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제주인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병항쟁에는 이념대립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시민들이 의병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병항쟁 사적지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40개 독립운동 사적지의 대부분은 원형을 잃어버린 채 멸실 또는 방치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 관련 단체 활동은 별도의 공간(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을 만든 인물의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화로 인해 현재 그 흔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신인회 활동지인 송종현 집, 적색농업조합 활동지인 김정봉의 집은 현재 도로에 편입되고 말았다.

2.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1) 개별 사적지 활용방안

근래에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일기념관, 독립기념관 또는 인물·사건 기념관을 세워 지역과 지역민들의 정체성 찾기와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 독립운동 사적지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단편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 산업·관광산업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⁵⁷⁾ 여기에서는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2010)에 실린 9개의 개별 사적지를 선정해 우선순위별로(①번부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천야학소 터

이 터에는 현재 ‘조천야학당’이라는 이름의 3층 건물이 세워져 있다. 조천야학소는 본래 1928년 8월부터 제주청년연맹 조천지부가 100여명의 회원을 규합해 만든 것이다. 이곳에서는 1929년 8월 13일 부녀자 노동야학을 조직하여 운영했다. 조천지부 청맹원들의 주된 활동은 신화문고 운영과 노동야학 개설이었다.⁵⁸⁾ 야학소 터 주변에 있는 김시용 집터(신화면 소비조합 활동지), 고순흙 집터(애국계몽운동), 김시는 집터(조천만세운동)와 연계한 독립운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조천지역 야학운동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

57) 박경목, 「청양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 232쪽.

58)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연구소, 2012, 266쪽.

위 항일정신을 계승했으면 한다. 조천야학당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원을 활용한 마을 살리기’ 정책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운영예산을 지원했으면 한다.

② 부춘화의 집

이곳은 1932년 제주해녀항일운동 당시 해녀대표로 해녀들의 권익향상과 생존권 투쟁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부춘화(1908~1995)의 집이다(그림 4). 부춘화는 15세부터 해녀생활을 시작했으며, 1927년부터 1931년까지 하도야학소에서 교육을 받아 해녀항일운동에 앞장 설 수 있었다. 부춘화의 생가를 제주해녀축제와 연계시켜 제주해녀의 위상을 높이는 답사장소로 활용하거나 우도-성산리-하도리-세화리(구좌읍)를 연결하는 ‘해녀항일운동벨트’를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녀항일운동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림 4〉 하도리 부춘화의 집(2009년 촬영)

③ 가파도 신유의숙터-김성숙 활동지

김성숙은 1919년 경성고보 4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한 후 체적되자 고향인 가파도로 돌아와 1926년(신유년) 대정지역 유지인 이웅신, 이시화, 김옥천, 김한정, 이도일 등과 함께 신유의숙(辛酉義塾, 가파리 355)을 설립했다. 이곳은 가파초등학교의 전신으로, 한글교육과 민족 주체성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시켰으며, 학교모표도 무궁화를 이용해 도안했다. 졸업생들은 대정지역에서 항일운동과 문맹퇴치에 앞장섰다. 해마다 열리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신유의숙과 김성숙을 주인공으로 하는 독립운동 체험기회를 부여했으면 한다.

④ 제주공립농업학교-학생운동지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은 1926년 일본인 교사가 한국인을 멸시하고 수

업을 소홀히 하자 일본인 교사 퇴출 및 차별교육을 반대하며 동맹휴학 전개했다. 또한 1931년 식민지교육 철폐, 일본인 스기사키 교장의 관사를 습격하는 등 전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저항했다. 학생 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에 현재의 제주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행했던 학생항일운동을 재현해 학생항일운동을 체험했으면 한다.

⑤ 김형수 집터-우리계 활동지

이곳은 제주시 삼도동 935번지에 위치한다. 김형수는 1927년 4월 9일 제주에서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노선에 해당하는 비밀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1929년 5월에는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계(宇利契)를 결성했으며, 이후 9월에는 야학을 설립해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무정부주의사상을 선전했다. 이 사적지를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도심재생사업)를 위한 역사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⑥ 김시용 집-신좌면 소비조합 활동지



〈그림 5〉 조천리 김시용의 집(2009년 촬영)

김시용은 1927년 10월 조천리 출신 김유환과 지역유지들에 의해 신좌면 소비조합을 조직했다. 그는 1937년경부터 신좌면 소비조합의 실질적 핵심인물로 활동하며 지역민들에게 반전사상을 고취하고, 창씨제도와 통제경제, 강제징집에 반대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상품을 싸게 판매했다. 그는 치안법과 육해군 형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사했다. 2009년 현재 김시용 집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어(그림 5) 조천마을 항일독립운동자료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김시용 집은 사회주의 계열 소비조합의 존재와 기능을 설명하는 최적의 장소로 손색이 없다.

⑦ 추자도어민항쟁지

추자도에는 1926년 상추자도 대서리에 있던 추자도어업조합이 어민들을 착취하고, 조합장과 이사 등이 수산물 판매에 부정을 저지르자 하추자도의 묵리, 예초리 주민들이 수산물 공정판매를 요구하며 일으킨 어민항쟁지와 ‘사와다 그물망 사건’으로 알려진 1932년 영흥리 어민항쟁지가 있다. 최근 추자도 예초리 주민들은 사건 발생 90주년을 맞아 「추자도예초리어민항쟁기념비」를 건립했다. 두 항쟁지를 매년 추자도에서 열리는 굴비축제에 항일운동 관련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추자도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의 경우처럼⁵⁹⁾ ‘항일운동의 섬’으로 부각시켜 1926년 또는 1932년 항일운동이 발생했던 날짜에 항일운동 재현행사를 했으면 한다.

⑧ 강관순 집(우도)

강관순은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우도에 있던 영명의숙 교사로 계몽운동과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1931년에는 구좌면에서 신재홍, 문도배 등과 함께 비밀결사인 혁우동맹을 결성했으며, 1932년 1월 제주해녀항일운동이 발생하면서 배후세력이었던 혁우동맹이 탄로나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옥중에서 ‘해녀의 노래’를 작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강관순의 집은 개량되어 남아 있으며(그림 6), 우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항일운동 관련 콘텐츠 추가해 우도 관문인 천진항에 있는 「우도해녀항일운동기념비」(그림 7)에서 만세행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2) 사적지의 종합적 활용방안

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 개발

다크투어리즘(darktourism)은 ‘역사교훈여행’으로, 전쟁과 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해

59)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소안항일운동사』, 2016.



〈그림 6〉 우도 오봉리 강관순 집(2009년 촬영) 〈그림 7〉 우도해녀 항일운동비(2009년 촬영)

떠나는 여행을 말한다.⁶⁰⁾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 가능한 사적지로는 일제탄압·수탈지인 ‘알뜨르 비행장’이 적당하다. 이곳에는 현재에도 1930년대 비행기 격납고와 지하 통신시설, 관제탑 등이 남아있다.⁶¹⁾ 이밖에 제주의병운동과 관련된 의병항쟁기념탑, 황사평 의병훈련지, 고사훈 의병장 생가터, 김만석 묘 등을 다크투어리즘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주항일기념관에 항일독립운동자료 아카이브 구축

독립운동 사적지가 점차 멸실과 변형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사적지 관련 유물과 유적, 사진과 문서, 구술자료 등을 포함한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하다. 독립운동 사적지는 미래 독립운동 연구자들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중요한 역사유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 학생운동 등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이 독립운동 전공 학예사를 채용해 독립운동 사료 아카이브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

③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시민

60) 김현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논문, 2010, 18쪽.

6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 현장읽기』, 2017, 80-89쪽.

사회와 사적지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기념관이나 또는 접근성이 양호한 공간을 이용해 제주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운동 등에 대한 시민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가칭 ‘제주항일독립운동 정기강좌’ 또는 ‘제주항일독립운동 시민 아카데미’를 수료한 시민들을 ‘항일독립운동 해설사’로 양성해 독립운동 사적지 해설을 맡겼으면 한다.

④ 독립운동 청소년 보훈캠프 운영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은 『한국사』 시간에 중앙사(中央史)로서의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으나, 지역사(地域史)로서의 제주지역 독립운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의병, 학생운동, 해녀항일운동을 체험하는 독립운동 청소년 보훈캠프 운영을 제안한다. 보훈캠프는 광복절 날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 광장에서 열 수 있다. 주간에는 이곳에서 출발해 조천리 독립운동 사적지와 구좌읍 세화리, 하도리를 연결하는 올레길 구간에 존재하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제주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조사보고서 발표대회를 열거나 연극과 노래 공연을 하게 한다면, 참가학생들이 즐겁게 독립운동 역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도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⑤ 독립운동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독립운동사의 대중화에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이 어렵고 사안이 복잡하며, 현재 우리들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립 운동가는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먼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⁶²⁾ 따라서 독립운동 사적지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적지가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

62) 박경목, 「충북지역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과 활용」, 2011, 103쪽.

와 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각 독립운동 사적지와 지역의 문화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에 관련된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학술 심포지움, 세미나, 개별적인 연구의 진작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 일정한 결과로 창출된 것이라야 탄탄한 서사적 구조를 가진 스토리가 탄생할 수 있다.⁶³⁾

나아가 독립운동 관련된 인물, 사적지, 유물, 유적, 자료들을 콘텐츠로 개발했으면 한다. 최근 발간된 『항일의 횃불, 김성숙』⁶⁴⁾과 『제주항일독립운동가, 제주여성교육자 최정숙』⁶⁵⁾ 그리고 제주의병장 고사훈, 김명식, 고순흠, 김문준 등의 일대기들은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원천자료로 손색이 없다.

⑥ 제주시 원도심 재생과 마을 살리기 연계

제주시 원도심에는 송종현 집터(신인회 활동지), 김형수 집터(우리계 활동지) 그리고 제주도 경찰서터가 남아있다. 비록 현재 원형은 사라지고 말았으나 해당 장소에 표지석이나 안내문을 설치해 원도심에서 이루어졌던 독립운동 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 역사가 있는 원도심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원도심 재생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운동 사적지들은 마을 살리기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조천읍 조천리 활성화사업에 조천만세운동을 활용하고, 추자도 영흥리와 예초리 어민항쟁지를 이용해 추자도 마을 재생 사업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⑦ 독립운동사 교육 및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V. 일제의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단원에서 1쪽 분량으로 「서울에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분을 배치해 백범기념관, 탑골공원, 순국선열추념탑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하거나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⁶⁶⁾ 제주지역에서도 한국사 수업을 할 때 독립운동 사적지를 활용해 독립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63) 박경목, 위의 논문, 104쪽.

64) 제주도교육청, 『항일의 횃불, 김성숙』, 2910.

65)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항일독립운동가, 제주여성교육자 최정숙』, 2016.

66)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7, 277쪽.

했으면 한다. 제주시 지역에 있는 조설대 집의계 구국맹약지, 송종현 집터, 제주의병항쟁기념탑, 조천야학소터, 조천만세운동기념탑, 제주항일기념관, 해녀항쟁기념탑, 그리고 서귀포시 가파도 신유의숙 김성숙 활동지, 법정사 항일운동지, 고성리 씨름항쟁지 등이 독립운동 체험지로 추천할 만하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2017년 12월 말 현재까지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148명의 독립유공자들과 그들이 남긴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현황 및 독립운동 양상, 독립운동 사적지의 분포현황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와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12월 현재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48명이다. 이는 제주지역 독립운동인사 500여명 가운데 30%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 미인정자에 대한 추가 자료발굴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2009년에 조사된 사적지는 40건에 불과하므로, 사적지들이 급속히 멸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사적지 조사를 순차적으로 늘렸으면 한다. 사적지 조사결과는 지역민의 정체성 확인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자산 및 마을자산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에 근거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에는 신인회, 신간회, 제주청년동맹, 제주야체이카, 제주적색농업조합 활동이 대표적이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던 아나키즘에 입각한 독립운동 사례에는 우리계(宇利契) 활동을 들 수 있다.

넷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투입해 애국계몽운동, 문화운동, 신교육운

동 등에 참여했으나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이 시급하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 강평국과 제주항일비행사 임도현 그리고 추자도 어민항쟁 관련자들에 자료 확보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독립운동 사적지를 단순한 유적이나 문화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해당 지역을 브랜드화시켜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여섯째, 독립운동 사적지를 이용해 다크투어리즘 활용 역사관광상품 개발, 항일독립운동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과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청소년 보훈캠프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적지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독립운동사 해설사 양성, 제주시 원도심 재생과 마을 살리기 연계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일곱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의 역할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처럼 시설보수와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350여명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주항일기념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

끝으로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적지를 품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동참 나아가 시민사회와 제주역사 연구단체,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찬흠,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북제주문화원, 2005.
-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과제-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 『제주도사연구』, 6, 1997.
- 김한중·남정우·이해영, 「독립운동사 교육에서 사적지 활용방법과 그 효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김현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논문, 2010.
- 문혜경, 「제주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새로운 정립-조천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제주항일항쟁사-기유제주의병항쟁편』, 제주항일기념관, 2014.
- 박경목,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도시 마케팅을 일환으로-」, 『충청문화연구』 7,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1.
- 박찬식,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의 시대별 성격」, 『제주도사연구』 8, 제주도사연구회, 1999.
-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논문, 1985.
-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가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 _____,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제주도사연구』 1, 1991.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9.
- 제주항일기념관, 『제주항일항쟁사-기유제주의병항쟁편』, 2014.
- 한금순,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Abstract

A Plan to Utiliz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in Jeju Region

Kang, Man-Ik*

This study analyzes the independence movements carried out by 148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suggests a method to utiliz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issues for further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of December 2017, there are 148 peopl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they account for only 30% of the total number of 505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nt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vidence to help the unrecognized persons who account for up to approximately 70% of the total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nts.

Second, in 2009,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surveyed 40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which accounts for no more than 27% of the total historical sites. Considering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have been damaged and destroyed, it is necessary for Jeju Special Self-Province or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officials to organize a survey budget,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and gradually increase the historic site survey. The findings of the historic site survey will help maintaining the identity of local residents, and serve as a village asset and historic asset of Jeju Province.

* Teacher, Jeju-Jungang Girl's High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to prove the activities of independence activis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ut in experts specialized i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to find materials on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Cultural Movement, New Education Movement and others but failed to b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about Kang Pyeong-guk, who was a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Im Do-hyeon, who was a Jeju anti-Japan pilot,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Fishermen's Struggle Against Japanese in Chujado Isl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It is necessary to brand the sites and make them 'a place to visit' or 'a place to stay' by revitalizing the entire sites rather than just to keep them as historic sites or cultural proper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story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ark tourism, establish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archives, develop storytelling and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nd establish a youth patriot camp by utiliz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Further, it is worth establishing the networks between historic sites and civil societies, fostering the commentators of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linking the regeneration of old downtowns and the revitalization of villages in Jeju.

Sixth,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Approximately 35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re not yet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due to the lack of evidence. In order to help them to be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should actively hold independence movement-related academic seminars,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dependence movement researchers, and expand the employment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specialists as curators, beyond performing

facilities maintenance and repair.

Finally,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Jeju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the following are needed: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in villages where historic sites are located; the participation of youth and students; and great efforts of civil societies, Jeju history research groups, Jeju Research Institute and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Key words :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Dark Tourism.

교신: 강만익 633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 26, 502호
(삼양이동 한라하이츠빌2차)
(E-mail: jejuteuri@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12. 31

심사완료일: 2018. 01. 27

게재확정일: 2018. 01. 31